

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주요 이슈

☞ 정부,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 정부는 7월 30일(목)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산업용지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마련해 집중 추진키로 함. 이로 인해 향후 제조업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 지며, 공장과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 등의 근거리 동반 입주도 허용됨. 공장 설립 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제한기간도 유연해질 예정

☞ 산업부, 중소기업 지원 위해 하반기 40억원 추경 편성

- 정부는 메르스, 엔저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 4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그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900개를 구축할 예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박근혜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해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 선정된 기업은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관심 있는 기업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산업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중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

☞ 경상북도,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 준공식 개최

- 경상북도는 7월 30일(목)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관섭 1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산업지구 개발 첫 결과물인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 준공식을 개최. 동 센터는 대지 5,369㎡, 지상 5층 규모로 ‘11년 총 9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 4월 완공되었으며, 메디컬섬유 소재와 관련된 시험분석과 시제품 제작장비 89종을 갖추. 한편, 메디컬섬유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용에 사용되는 각종 섬유로, 치료·수술용(인공혈관, 혈액투석필터 등)과 헬스케어·위생용(가운, 마스크, 기저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세계시장 규모는 ‘10년 기준 82억불(240만톤)로 알려짐

◆ 업계 동향

☞ ‘15년 상반기 국내 화섬 생산량 6.5% 감소

- 화섬협회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국내 화섬생산량은 64만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PF)는 6.9% 감소한 31만6천톤, 나일론 필라멘트사(NF)는 9.2% 감소한 5만3천톤, 아크릴 스테이플화이버(ASF)도 12.3% 감소한 1만9천톤 수준에 그침. 상반기 화섬 출하량은 64만1천톤으로 7.7%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내수 판매는 12.2% 감소한 34만4천톤, 직수출은 1.7% 감소한 29만7천톤으로 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경기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인해 재고는 10.9% 증가해 10만2천톤 수준에 이름. 상반기 화섬 수출량은 55만8천톤으로 3.3% 증가했으나, 금액은 11억3천8백만불로 11.5% 감소했으며, 수입량은 21만7천톤으로 5.1% 증가한 반면, 금액으로는 5억5천8백만불로 7.4% 감소함

☞ 대구·경북 섬유산업 경기동향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 섬유산업 경기동향 자료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지역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한 14억3천6백만불을 기록. 주력품목인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은 3억5천4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으며, 평균 수출단가는 9.73\$/kg으로 4.4% 떨어짐. 대구·경북지역 130개 업체들 대상으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서는 5~6월 체감 종합 지수(BSI)가 74.8, 향후 전망 또한 66.4로 낮게 조사됨. 5-6월 내수 체감지수는 62.7로 3~4월(84.3)보다 더 떨어졌으며, 향후 전망도 56.2로 경기부진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 수출 전망 또한 7~8월은 라마단과 바이어 휴가 기간으로 오더량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

☞ 의류 프로모션 오더물량 급감

- 내수경기 악화로 패션브랜드업체들이 F/W 추동 물량을 줄이면서 프로모션 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프로모션 업체들의 오더 물량이 전년대비 20~40% 감소했으며,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가는 변동이 없어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 납품대금 결제 지연과 부당 클레임 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 브랜드업체들은 전년보다 스타일수는 늘리는 한편, 스타일당 물량은 적게 만들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편집숍이 활성화 되면서 프로모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싱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도 오더 물량 축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해외시장 동향

☞ 유로화 약세로 터키 의류산업 고전

- 달러/유로 환율이 지난해 1.36달러에서 올 초 1.18달러로 하락하면서 터키의 올 상반기 달러 환산 의류 수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12억불(△12.8%) 감소한 82억불에 그침. 터키는 의류 수출의 80% 이상을 유로존으로 수출하며, 터키 제조업체 대부분이 원자재에 대해서는 달러로 결제하고, 의류 수출시에는 유로화로 결제하는 구조로 달러화로 계산시 큰 손실이 발생. 아울러, 러시아로의 수출이 43.3% 감소하는 등 유로존 이외의 지역으로의 수출도 크게 줄면서 물량 또한 전년동기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로 약세로 일부 바이어들은 달러로 결제를 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로로 결제하는 터키지역으로 소싱처를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연말이나 내년에는 터키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 동향

- 베트남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115.2억불을 기록. 이 가운데 사류는 7.2% 증가한 12.6억불, 섬유 및 의류는 10.2% 증가한 102.6억불을 기록. 한편,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의하면 '15년 1~5월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국에 대한 베트남 의류·섬유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TPP 시장으로의 수출은 전체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액의 66.8%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40.1억불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TPP 발효시 현재 대비 수출 증가율이 연 7~8%에서 연 1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양말류 시장 성장세

- 미국 섬유·의류사무국(OTEXA) 집계에 따르면, '14년 미국의 양말류 수입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20.1억불을 기록. 국가별 수입은 중국(10.5억불), 엘살바도르(2.5억불), 온두라스(1.6억불), 파키스탄(1.4억불), 한국(1.0억불)의 순을 나타냄. 아울러, 올해 5월까지 양말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7.8억불로 증가폭이 확대.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NPD Group에 따르면, 지난 1년간(5월 기준) 미국의 양말류 시장 규모는 73억불로 3.0% 증가함. 특히, 밀레니얼 세대(18세~34세)의 양말류 구입은 12.0% 증가를 기록하며, 다른 세대들의 양말류 구입 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됨

☞ 남성복과 스포츠 칠레 의류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

- 칠레 신문사 El Mercurio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 중 최근 의류 소비 증가율이 가장 큰 나라는 칠레로, 칠레 의류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칠레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4년 산티아고 내 소매업 판매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의류 및 신발의 판매는 각각 7.5%, 13.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남성 의류와 스포츠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WTO 자료에서도 칠레의 의류 수입금액은 약 29억불('13년 기준)로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산업부, '15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휴일 영업일수 감소(△3일), 메르스 영향 등으로 식품(△5.5%), 가전문화(△19.4%), 의류(△16.5%) 등 전 품목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 백화점은 선세일, 시즌오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의류, 잡화, 해외유명브랜드 등 주요 품목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11.9% 감소함(잡화 △12.1%, 아동스포츠 △14.6%, 해외유명브랜드 △11.2%, 여성캐주얼 △12.4%, 여성정장 △15.9%, 남성의류 △18.1%)

< 유통업체 매출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

구분	'14년	'14년							'1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형마트	△3.4	△5.9	△4.6	3.2	△10.1	△0.9	△4.7	△3.8	△18.3	24.5	△6.5	0.0	0.5	△10.2
백화점	△0.7	△4.6	2.0	10.5	△6.3	△2.2	△6.5	△0.9	△11.0	6.6	△5.7	1.3	3.1	△11.9

☞ '15년 국내 패션시장 규모 1.8% 성장한 45조4천억원 전망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시장 규모 조사 결과, '14년 국내 패션시장은 3.1% 증가한 44조6천억원, '15년은 1.8% 성장한 45조4천억원으로 전망. '14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국내 패션기업 매출액은 약 35조3천억원으로 유통수수료와 부가세 반영시 전체 시장규모는 44조6천억원으로 추산.(비브랜드와 해외직구 등의 매출 약 10조원은 제외) 복종별로는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SPA 브랜드와 온라인 업체들로 인해 캐주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특히, 스포츠는 아웃도어 및 골프 시장 확대로 꾸준히 점유율이 상승함. 한편, 기업실적 분석 결과 국내 패션시장은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익성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원자재 가격 동향

- ☞ 원면가격은 방적업체들의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1개월간 가격이 5.3% 떨어짐. 중국에서는 비축원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 상품시장 가격도 중국의 주식시장 급락과 경제불안 등으로 하락세 지속이 예상. 화섬원료는 PTA 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MEG 가격은 소폭 하락함. 국제 원유 가격 하락으로 기초원료인 PX 가격도 약세를 보였으며, 비수기 영향으로 시장은 당분간 다운트렌드가 예상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7/31	미국('15년 10월 인도분)	64.01	△2.8%	△5.3%	△3.5%
PTA(\$/MT)	7/31	CIF China (90 days credit term)	640	1.6%	△9.9%	△15.8%
MEG(\$/MT)			820	△1.2%	△10.9%	△19.5%

섬유패션산업 동향

Biweekly Tex+Fa Brief

- 발행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 홈페이지 : www.kofoti.or.kr
 - 전화 : 02-528-4024 / 팩스 : 02-528-4070
-